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의 관계에서 권위주의의 매개효과*

김 나 은[†]

박 지 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본 연구는 자기애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고, 이 사이에서 권위주의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특히 자기애의 하위 요인 각각이 세 가지 유형의 데이트 폭력(신체적, 정서적,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여기에 권위주의가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애가 강할수록 세 가지 유형의 데이트 폭력 각각의 빈도가 더 높았으며, 권위주의 성격 또한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자기애의 하위 요인 중 권위와 과시, 특권 의식이 신체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권위주의 성격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자기애 하위 요인 중 자기충분성과 과시가 정서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권위주의 성격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자기애의 하위 요인 중 과시와 특권 의식이 성적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권위주의 성격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유형별로 자기애의 하위 요인 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의 사이에서 권위주의 성격이 갖는 매개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자기애, 데이트 폭력, 권위주의,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3063902).

† 제1저자: 김나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Copyright © 2022,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권위주의 성격(Authoritarian personality)은 권력과 지배를 중시하는 전반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인간을 상하관계로 구분한 후, 강자에 대해서는 복종의 태도를 보이지만 약자에 대해서는 공격적이고 가혹한 태도를 보이는 이중성을 지닌 성격을 의미한다(Adorno, Frenkel-Brunswik, Levinson, & Sanford, 1950; Altemeyer, 1988). 이러한 권위주의 성격은 약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심리학과 사회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 및 정치 문제들에 있어 주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Passini, 2008).

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은 잔소리를 하거나 분노를 표현하는 등 자기주장을 강하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Rajan & Krishnan, 2002). 구체적으로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신체적/언어적 공격성, 분노 및 적개심 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Al-Tarrah & Lester, 2006). 실제로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학교 폭력 가해행위, 가해 동조행위, 가해 방관 행위가 증가하였으며(이종원, 윤상연, 김혜진, 허태균, 2014), 권위주의 성격은 강간 통념 및 적대적 성차별의식을 매개로 성적 괴롭힘 행위에도 영향을 미쳤다(Begany & Milburn, 2002).

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권력을 얻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서 특히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바탕으로(Adorno et al., 1950), 사람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 중에서도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권위주의 성격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인간을 상하관계로 지각하고 지배와 복종의 신념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

문에 약한 상대에 대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갈등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쉬운데(이종원 외, 2014; 조은경, 박지선, 2021), 이는 데이트 관계에서도 권위주의가 강할수록 상대에 신체적 공격이나 지배 등 정서적 폭력, 성적 강요 등의 성적 폭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실제로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친밀한 관계의 상대방에 대한 폭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lumenstein, Fridell, & Jones, 2012). 특히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자기애의 영향(남귀숙, 이수진, 2020)에 있어서 권위주의 성격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권위주의 성격과 공격성

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보수적이고, 권력을 추구하고 소수자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변화에 저항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가치에 반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Rajan & Krishnan, 2002). 이러한 권위주의 성격의 하위 요인으로는 다음 9가지가 있다(민경환, 1989; Roiser & Willing, 2002).

첫째, 인습주의는 직업의 귀천이 있다고 믿는 등 관습적이고 융통성 없이 기존의 가치를 고수하는 태도를 말한다. 둘째, 권위주의적 복종은 사회에 엄격한 통제와 질서가 필요하다고 믿는 등 내집단의 이상화된 도덕적 권위에 대해 무비판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셋째, 권위주의적 공격성은 명예를 모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법이 충분치 않을 경우 비상조치라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등 관습적인 가치를 위반하는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 보며 그들을 규탄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믿는

성향을 의미한다. 넷째, 반(反)내성주의는 혼자 있게 되면 잡념이 생기니 혼자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 등 주관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관념론적인 생각에 반대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다섯째,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는 사람의 운명에 대해 미신을 믿거나 선인과 악인, 아군과 적군과 같은 인간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 등 경직된 범주에서 생각하는 성향을 말한다. 여섯째,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은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권위와 경쟁에서의 승리를 중시하는 등 지배와 복종, 강함과 약함, 리더와 추종자의 상하 이분법적 관점에 집착하여 권력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일곱째, 파괴주의와 냉소주의는 갈등이 인간의 본성이므로 전쟁이 그치지 않는 다거나, 자신의 이익 없이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등 인간에 대한 전반적인 적대감과 비방하는 성향을 말한다. 여덟째, 투사성은 다른 사람의 진심을 왜곡하고 의심하는 등 험하고 위험한 것들이 세상에는 끊이지 않다고 믿으며, 이러한 무의식적인 감정적 충동을 밖으로 투사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아홉째, 성(性)은 성문란이 사회에서 가장 큰 도덕적 타락이라 믿는 등 성적인 행위에 대해 과장되어 우려하는 태도를 일컫는다.

특히나 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은 권력에 복종하면서도 타인을 지배하려는 등 권력에 대한 추구 또한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이예립, 박지선, 2021), 이러한 성격적 특징들로 인해 권위주의 성격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윤상연, 한성열, 2008). 특히 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은 폭력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폭력이나 감옥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 그리고 아동에 대한

체벌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Benjamin, 2006).

이처럼 권위주의 성격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 왔다. 일례로, 권위주의 성격은 학교 폭력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홍지웅, 주해원, 현명호, 2016),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직접적인 학교 폭력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가해 동조 행위, 가해 방관 행위가 증가하였다(이종원 외, 2014). 또한 권위주의 성격은 성희롱 가해 행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gany & Milburn, 2002).

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태도는 배우자 혹은 연인에게도 이어진다(Adorno et al., 1950). 실제로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배우자에 대한 폭력성이 더 높았으며(Johnson, Todd, & Subramanian, 2005), 친밀한 관계의 상대방에게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nderson & Lo, 2011). 더불어 권위주의 성격은 친밀한 관계의 상대를 향한 정서적 폭력에도 영향을 미쳐,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정서적 폭력의 가해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lumenstein et al., 2012). 또한 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은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적 묘사가 두드러지지 않을 때보다 성적인 묘사가 두드러질 때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고(Spaccatini, Pacilli, Giovannelli, Roccatto, & Penone, 2019),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강간 통념 수용도 및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성적 폭력의 증가로 이어졌다(Begany & Milburn, 2002).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의 공격성을 시사하는 권위주의 성격의 전반적인 특징을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성격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였다.

데이트 폭력 유형과 관련 요인

데이트 폭력은 미혼인 연인 사이에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가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의미한다(신수연, 김근향, 2021). 구체적으로 데이트 폭력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은 상대방을 밀거나 발로 차는 행동뿐만 아니라 다치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폭력을 의미한다(김동현, 박주애, 광대경, 2021). 정서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와 상대방의 소유물을 부수는 등의 폭력을 말한다(Straus, Hamby, Boney-McCoy, & Sugarman, 1996). 성적 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폭력을 의미한다(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약 70%가 20대에서 발생하였고, 정서적 폭력과 성적 폭력이 가장 빈번하였으며 신체적 폭력이 그 뒤를 이었다(홍영오 외, 2015).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인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로맨스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갈등으로 치부되는 등 그 심각성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오주령, 박지선 2019). 그러나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불안과 무기력, 더 나아가 자해 및 자살 등의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다(성용은, 2021).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심리학, 법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데이트 폭력 관련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이상훈, 조상현, 2021).

지금까지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상훈, 조상현, 2021), 가정 폭력 목격(Wolf & Foshee, 2003), 음주 및 약물 복용(Chase, Treboux, & O'leary, 2002; Shorey, Stuart, & Cornelius, 2011), 친구의 폭력 목격(Arriaga & Foshee, 2004), 폭력허용도(김동현 외, 2021), 성 고정관념(Reyes, Foshee, Niolon, Reidy, & Hall, 2016) 등이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을 때 여성에 대해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며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높아졌고, 이는 데이트 폭력 가해로 이어졌다(이상훈, 조상현, 2021). 또한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파괴적인 분노 표현 방식을 배우게 되고, 이는 데이트 폭력 가해로 이어졌다(Wolf & Foshee, 2003). 또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태도가 강할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더 많았으며(이숙정, 권호인, 2021), 성 고정관념 또한 데이트 폭력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Reyes et al., 2016).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데이트 폭력 가해가 단순히 한 가지의 요인만으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범죄임을 시사한다(김동현 외, 2021).

본 연구에서는 앞서 공격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권위주의 성격과 함께, 최근 데이트 폭력 가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자기애(원선호, 배성만, 2020)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였다. 특히 자기애의 구체적 하위 요인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에 대해서 권위주의 성격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였다.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자기애는 웅대한 자아상을 지닌 것이 특징으로, 무한한 성공과 권력에 집착하고 타인에게 무관심하며, 상대방에 특별한 호의를 기대하거나 스스로 특권의식을 느끼고, 대인관계에서 착취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격을 말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자기애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비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남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Du, Miller, & Lynam, 2021), 정서적 공감 능력이 낮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신다혜, 이인혜, 2021).

이러한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도구가 개발되었고, 그 가운데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는 상당수의 자기애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Wright & Edershile, 2018). NPI는 권위, 과시, 자기충분성, 착취성, 허영심, 우월성, 특권의식 등 총 7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권의식과 착취성은 극심한 심리적 부적응적인 측면을, 자기충분성과 권위는 가벼운 심리적 부적응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askin & Novacek, 1989).

자기애는 강한 분노와 적대감을 핵심적인 정서적 특징으로 지니고 있는데(신다혜, 이인혜, 2021), 이에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약 20년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며 활발히 이어져 왔다(Du et al., 2021). 자기애는 임상군과 비임상군 모두에서 공격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였으며(Lambe, Hamilton-Giachrisis, Garner, & Walker, 2018), 이러한 자기애와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는 연령, 성별, 그리고 인종을 통제하고도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

다(Du et al., 2021). 또한 범죄자가 비범죄자보다 자기애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ushman & Baumeister, 2002), 특히 특권의식과 우월성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애와 공격성 간의 연구에서는 NPI의 모든 하위 요인과 공격성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하위 요인 중 권위, 과시, 착취성, 특권의식이 공격성과 가장 일관적이고도 큰 정적 상관을 보였다(Reidy, Zeichner, Foster, & Martinez, 2008).

자기애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분노 상황이 되풀이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임효열, 하승수, 2019), 이러한 분노 반추 성향으로 인해 복수심을 느끼고 분노 정서에 취약하여 대인관계에서 마찰이나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신다혜, 이인혜, 2021; 정지은, 박지선, 2022). 이러한 갈등은 특히 가까운 배우자나 연인 관계에서 폭력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자기애 성격이 강할수록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더 허용적 태도를 보였으며(Blinkhorn, Lyons, & Almond, 2016), 더 나아가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폭력이 실제로 더 자주 발생하였다(Küre, 2017). 특히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데이트 폭력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Erdem & Sahin, 2017), 심리적, 신체적, 성적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이 실제로 더 많았다(남귀숙, 이수진, 2020).

이러한 자기애는 성격의 기질적인 측면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애의 공격적 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서 작용하는 매개변인을 찾아 그 효과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신다혜, 이인혜, 2021). 특히 자기애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과장된 자기상을 유지하고자 연인과의 사이에서 대화나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지배력을 과시하는 등 상대방에게 힘의 우위를 보이려는 경향이 있다(Vrabel, Zeigler-Hill, Lehtman, & Hernandez, 2020). 이와 같은 통제와 권력에 대한 욕구는 권위주의 성격의 핵심으로서, 자기에 성격이 강할수록 원활한 연인 관계의 기능을 저해하고 심각한 경우 데이트 폭력 가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자기에의 하위 요인 중 과시는 데이트 폭력 허용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Erdem & Sahin,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에의 하위 요인별로 알아보고, 자기에와 데이트 폭력 간 관계에서 권위주의 성격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힌, 연애 경험이 있는 20-30세 사이의 미혼 남녀 200명이 온라인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약 15-20분 사이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연구 참가자들에게 리워드도 지급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성별 분포는 여성 100명, 남성 100명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졌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26.0세($SD = 2.9$)였고, 나이의 최빈값은 29세였으며, 중간값은 27세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교제 기간의 범위는 1개월에서 168개월까지로 나타났으며, 평균 26.69

개월($SD = 23.13$)이었다. 교제 기간의 최빈값은 24개월이었으며, 중간값도 24개월이었다.

측정 도구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은 갈등 책략 척도 개정판(CTS-2: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2; Straus 외, 1996)을 바탕으로 하여, 신체적 폭력(12문항), 정서적 폭력(8문항), 성적 폭력(10문항) 척도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성적 폭력 문항의 경우 홍영오 외(2015)에서 사용한 성희롱 관련 문항을 수정 및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상대방의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있다.”, “상대방을 발로 찬 적이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정서적 폭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상대방의 소유물을 부순 적이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성적 폭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상대를 위협한 적이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없다’(1점)에서 ‘매우 자주 있다’(5점) 중 하나로 응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유형의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 빈도가 잦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데이트 폭력 각 하위 유형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신체적 폭력 .98, 정서적 폭력 .93, 성적 폭력 .97이었다.

자기애

연구 참가자들의 자기애 성격을 측정하는

데 Raskin과 Terry(1988)의 NPI를 한수정(1999)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40문항으로, 권위(8문항), 자기충분성(6문항), 우월성(5문항), 과시(7문항), 착취성(5문항), 허영심(3문항), 특권의식(6문항) 등 총 7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Raskin & Terry, 1988). 연구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한 두 개의 응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중 한 가지는 높은 자기애 성향을 가리키며 (예: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낮은 자기애 성향을 의미한다(예: “나는 내가 한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각 문항에서 자기애 성향이 높은 응답에는 1점, 낮은 응답에는 0점을 부과하여 총점은 최소 0점에서 최대 40점 사이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애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85이었다.

권위주의 성격

권위주의 성격의 측정을 위해 민경환(1989)이 제작한 한국판 권위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35문항으로 인습주의, 권위주의적 복종,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반내성주의, 권위주의적 공격성,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성, 투사성 등 총 9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우리의 명예에 모욕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아이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미덕은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내적일치도는 .90이었다.

분석 절차

SPSS 25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3.5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상관분석을 통하여 주요 변인들 사이 관계를 알아보고,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NPI의 각 하위 요인별로 테이트 폭력의 세 가지 하위 유형 간 관계에서 권위주의의 매개효과를 조사하였다. PROCESS macro model 4의 경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에 매개변인을 설정하여,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직접효과와 매개변인 투입 시 간접효과를 분석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다(Hayes, 2017). 여기에서는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PI 각 하위 요인과 테이트 폭력 각 하위 유형 간 관계에서 단일 매개변인으로서 권위주의 성격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매개효과 분석 시 연구 참가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인 성별, 나이, 교제 기간은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먼저 주요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1 참조). 연구 결과 연구 참가자의 성별과 NPI 총점($r = -.25, p < .01$)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 참가자가 여성일 때 보다 남성일 때 NPI 총점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성별은 NPI 하위 요인 중 권위($r = -.24, p < .01$), 자기충분성($r = -.33, p < .01$), 과시($r = -.17, p < .05$)와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성별	1.00														
2. 나이	-.08	1.00													
3. 교제 기간	.05	.26**	1.00												
4. NPI	-.25**	0.03	-0.05	1.00											
5. 권위	-.24**	0.08	-0.05	.84**	1.00										
6. 자기충분성	-.33**	0.07	-0.09	.69**	.50**	1.00									
7. 우울성	-0.14	0.09	-0.12	.72**	.60**	.43**	1.00								
8. 과시	-.17*	-0.02	0.05	.74**	.56**	.33**	.44**	1.00							
9. 착취성	-0.11	-0.02	-0.04	.54**	.34**	.35**	.24**	.31**	1.00						
10. 허영심	-0.02	-0.08	0.02	.50**	.30**	.21**	.29**	.43**	.18*	1.00					
11. 특권의식	-0.13	-0.03	0.00	.68**	.50**	.43**	.38**	.42**	.26**	.22**	1.00				
12. 권위주의 성격	-.22**	0.06	-0.07	.27**	.23**	.25**	0.04	.24**	0.13	0.05	.31**	1.00			
13. 신체적 폭력	-.20**	0.08	0.05	.26**	.14*	.29**	0.01	.25**	.18*	0.10	.25**	.51**	1.00		
14. 정서적 폭력	-.14*	.17*	0.13	.24**	0.13	.21**	0.05	.22**	0.12	.14*	.28**	.47**	.79**	1.00	
15. 성적 폭력	-.20**	0.08	0.01	.24**	0.13	.26**	0.05	.21**	0.11	.15*	.25**	.43**	.89**	.69**	1.00
평균	26.0	26.69	26.69	.36	.40	.34	.45	.28	.33	.40	.38	2.93	1.50	2.00	1.44
표준편차	2.9	23.13	23.13	.18	.25	.25	.28	.22	.25	.34	.24	.53	.92	.96	.86

주. 연구 참가자 성별: 1 = 남성, 2 = 여성

* $p < .05$, ** $p < .01$

또한 성별과 권위주의 성격 간 부적 상관이 유의하여 연구 참가자가 여성일 때보다 남성일 때 권위주의 성격이($r = -.22, p < .01$)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의 성별은 데이트 폭력 하위 유형인 신체적 폭력($r = -.20, p < .01$), 정서적 폭력($r = -.14, p < .05$), 성적 폭력($r = -.20, p < .01$)과도 모두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즉, 연구 참가자가 여성일 때보다 남성일 때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빈도가 높았다.

연구 참가자의 나이는 교제 기간($r = .26, p < .01$), 정서적 폭력($r = .17,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나머지 변인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 참가자의 교제 기간은 다른 모든 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NPI는 모든 하위 요인 7개와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으며, 하위 요인 간에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데이트 폭력 하위 유형 간 정적 상관도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NPI 총점이 높을수록 권위주의 성격($r = .27, p < .01$)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폭력($r = .26, p < .01$), 정서적 폭력($r = .24, p < .01$), 성적 폭력($r = .24, p < .01$) 가해 경험도 더 많았다.

구체적으로 권위주의 성격과 NPI 하위 요인 간 관계를 보면, 권위($r = .23, p < .01$), 자기충분성($r = .24, p < .01$), 과시($r = .24, p < .01$), 특권의식($r = .31, p < .01$)이 높을수록 권위주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위($r = .14, p < .05$)와 착취성($r = .18, p < .05$)이 높을수록 신체적 폭력 가해 경험이 더 많았으며, 허영심이 높을수록 정서적 폭력($r = .14, p < .05$)과 성적 폭력($r = .15, p < .05$) 가해 경험이 더 많았다. 자기충분성, 과시, 특권의식은 데이트 폭력 하위 유형 모

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과시적이고(신체적: $r = .25, p < .01$, 정서적: $r = .22, p < .01$, 성적: $r = .21, p < .01$) 자기충분성과(신체적: $r = .29, p < .01$, 정서적: $r = .21, p < .01$, 성적: $r = .26, p < .01$) 특권의식이(신체적: $r = .25, p < .01$, 정서적: $r = .28, p < .01$, 성적: $r = .25, p < .01$) 높을수록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가해 경험이 더 많았다. 우월성은 권위주의 성격과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간 상관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신체적 폭력($r = .51, p < .01$), 정서적 폭력($r = .47, p < .01$), 성적 폭력($r = .43, p < .01$) 가해 경험이 더 많았다.

NPI 하위 요인이 신체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 효과

앞선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NPI 하위 요인에 따른 데이트 폭력 하위 유형별 가해 경험에서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우선 NPI 하위 요인을 독립 변인, 신체적 데이트 폭력을 종속 변인, 권위주의 성격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고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권위, 과시, 특권의식이 신체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권위주의 성격의 완전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표 2 참조). 즉, 자기애 하위 요인 중 권위가 높을수록 권위주의 성격이 강했으며($b = .37, s.e. = .15, t = 2.50, p < .05$),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신체적 폭력 가해 빈도가 높았다($b = .84, s.e. = .11, t = 7.69, p < .001$). 이때 권위가 신체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권위주의 성격의 완전 매개

표 2. 권위, 과시, 특권의식이 신체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효과

경로	<i>b</i>	<i>SE</i>	<i>LLCI</i>	<i>ULCI</i>
총효과				
권위 → 신체적 폭력	.3531	.2607	-.1611	.8674
직접효과				
권위 → 신체적 폭력	.0377	.2325	-.4209	.4962
간접효과				
권위 → 권위주의 성격 → 신체적 폭력	.3154	.1443	.0534	.6170
경로				
총효과				
과시 → 신체적 폭력	.9359	.2859	.3721	1.4998
직접효과				
과시 → 신체적 폭력	.5098	.2607	-.0044	1.0239
간접효과				
과시 → 권위주의 성격 → 신체적 폭력	.4262	.1564	.1588	.7683
경로				
총효과				
특권의식 → 신체적 폭력	.8007	.2626	.3628	1.3986
직접효과				
특권의식 → 신체적 폭력	.3610	.2458	-.1238	.8458
간접효과				
특권의식 → 권위주의 성격 → 신체적 폭력	.5197	.1520	.2587	.8484

효과가 유의하였다.

또한 과시적일수록 권위주의 성격이 강했고 ($b = .53, s.e. = .17, t = 3.22, p < .01$),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신체적 폭력 가해 빈도가 높았으며($b = .80, s.e. = .11, t = 7.28, p < .001$), 과시와 신체적 폭력 사이를 권위주의 성격이 완전 매개하였다(그림 1 참조).

마지막으로 특권의식이 높을수록 권위주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b = .65, s.e. = .15, t = 4.36, p < .001$), 권위주의 성격이 강



직접효과, $b = 0.51, s.e. = 0.26, p = .052$

간접효과, $b = 0.43, s.e. = 0.16, 95\% CI [.1588, .7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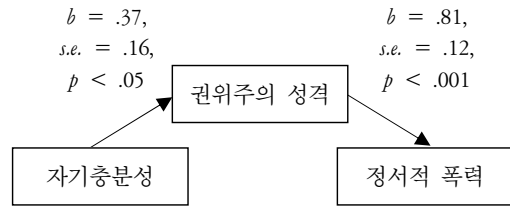
그림 1. 과시와 신체적 데이트 폭력에 대한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효과

할수록 신체적 폭력 가해 빈도가 높았다($b = .80, s.e. = .11, t = 7.09, p < .001$). 그리고 특권 의식이 신체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권위주의 성격의 완전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NPI 하위 요인이 정서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 효과

다음으로 앞선 절차와 동일하게 NPI 하위 요인이 정서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자기충분성과 과시가 정서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권위주의 성격의 완전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표 3, 그림 2 참조). 즉, 자기충분성이 높을수록 권위주의 성격이 강했으며($b = .37, s.e. = .16, t = 2.39, p < .05$),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정서적 폭력 가해 경험이 많았다($b = .81, s.e. = .12, t =$



직접효과, $b = 0.41, s.e. = 0.26, p = .11$

간접효과, $b = 0.30, s.e. = 0.14, 95\% CI [.0489, .6094]$

그림 2. 자기충분성과 정서적 데이트 폭력에 대한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효과

7.01, $p < .001$). 그리고 자기충분성과 정서적 폭력 간에 권위주의 성격의 완전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또한 과시적일수록 권위주의 성격이 강하였고($b = .53, s.e. = .17, t = 3.22, p < .01$),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정서적 폭력 가해 경험이 많았으며($b = .80, s.e. = .12, t = 6.83, p$

표 3. 자기충분성과 과시가 정서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효과

경로	<i>b</i>	<i>SE</i>	<i>LLCI</i>	<i>ULCI</i>
총효과				
자기충분성 → 정서적 폭력	.7129	.2814	.1578	1.2680
직접효과				
자기충분성 → 정서적 폭력	.4105	.2557	-.0939	.9148
간접효과				
자기충분성 → 권위주의 성격 → 정서적 폭력	.3024	.1393	.0489	.6094
경로				
총효과				
과시 → 정서적 폭력	.8826	.3006	.2897	1.4755
직접효과				
과시 → 정서적 폭력	.4566	.2777	-.0911	1.0044
간접효과				
과시 → 권위주의 성격 → 정서적 폭력	.4260	.1511	.1596	.7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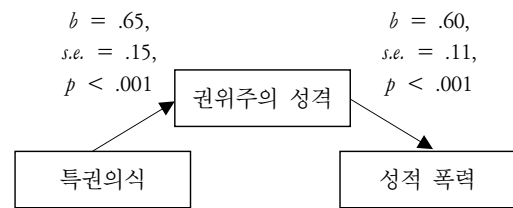
< .001), 과시와 정서적 폭력 사이에서 권위주의 성격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다.

NPI 하위 요인이 성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 효과

NPI 하위 요인과 성적 데이트 폭력 사이를 권위주의 성격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표 4 참조). 그 결과, 과시적일수록 높은 권위주의 성격을 보였으며($b = .53, s.e. = .17, t = 3.22, p < .01$),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성적 폭력 가해 빈도가 높았다($b = .62, s.e. = .11, t = 5.74, p < .001$). 이때 과시와 성적 폭력 간의 관계를 권위주의 성격이 완전 매개하였다.

또한 특권의식이 높을수록 권위주의 성격이 강하였고($b = .65, s.e. = .15, t = 4.36, p <$

.001),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성적 폭력 가해 빈도가 높았다($b = .60, s.e. = .11, t = 5.44, p < .001$). 그리고 특권의식이 성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권위주의 성격의 완전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그림 3 참조).



직접효과, $b = 0.44, s.e. = 0.24, p = .07$

간접효과, $b = 0.39, s.e. = 0.13, 95\% CI [.1678, .6887]$

그림 3. 특권의식과 성적 데이트 폭력에 대한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효과

표 4. 과시와 특권의식이 성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효과

경로	<i>b</i>	<i>SE</i>	<i>LLCI</i>	<i>ULCI</i>
총효과				
과시 → 성적 폭력	.7287	.2718	.1927	1.2648
직접효과				
과시 → 성적 폭력	.3952	.2585	-.1147	.9051
간접효과				
과시 → 권위주의 성격 → 성적 폭력	.3336	.1354	.1067	.6424
경로				
총효과				
특권의식 → 성적 폭력	.8296	.2475	.3414	1.3178
직접효과				
특권의식 → 성적 폭력	.4368	.2422	-.0409	.9145
간접효과				
특권의식 → 권위주의 성격 → 성적 폭력	.3928	.1311	.1678	.6887

논 의

데이트 폭력은 직접적이고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Chase et al., 2002). 데이트 폭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자기애는 오랜 기간 연구되어 왔으며(Bushman & Baumeister,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 요인에 대해 자기애와 함께 권위주의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애 하위 요인 중 과시와 신체적, 정서적, 성적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에서 권위주의 성격의 완전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과시적일수록 권위주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났으며,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신체적, 정서적, 성적 데이트 폭력 가해 빈도가 더 잦았다. 과시는 여러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하며 새로운 유행이나 스타일을 주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등 감각 추구적이고 외향적인 특징을 지닌 요인이다(Raskin & Terry, 1988). 선행 연구에서 과시는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eidy et al., 2008), 특히 과시는 NPI 하위 요인 중 유일하게 남성 및 여성에 의한 정서적 데이트 폭력 허용도와 신체적 데이트 폭력 허용도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Erdem & Sahin, 2017). 따라서 과시가 권위주의 성격을 매개로 모든 데이트 폭력 하위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애 하위 요인 중 과시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자기애 하위 요인 중 특권의식과 신체적, 성적 데이트 폭력 간 관계를 권위주의 성격이 완전 매개하였다. 특권의식은 다른 사람

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며 마땅한 대접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타인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며 야망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요인이다(Raskin & Terry, 1988). 이러한 특권의식은 자기애의 부적응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하위 요인이다(Ackerman et al., 2011). 또한 특권의식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강하게 예측하였으며(Ackerman & Donnellan, 2013), 특권의식이 강할수록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더 허용적이었다(Blinkhorn et al., 2016). 본 연구에서도 특권의식이 권위주의 성격을 매개로 신체적 데이트 폭력과 성적 데이트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특권의식이 자기애의 부적응적인 측면을 반영하며 공격성과 관련이 높은 변인임이 한 번 더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권의식과 정서적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에서는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두 변인 사이에 다른 매개변인의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주목할 점은 데이트 폭력 하위 유형별로 권위주의 성격의 완전 매개 효과가 나타난 자기애의 하위 요인이 달랐다는 점이다. 즉, 신체적 데이트 폭력의 경우 권위, 과시, 특권의식과의 관계에서 권위주의 성격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으며, 정서적 데이트 폭력의 경우 자기충분성과 과시, 성적 데이트 폭력은 과시와 특권의식과의 관계에서 권위주의 성격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는 데이트 폭력 유형별로 자기애의 하위 요인이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앞으로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연구할 때 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자기애의 하위 요인 중 권위는 리더가

되는 것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등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요인이다(Raskin & Terry, 1988). 권위 욕구가 높을수록 아동에 대한 체벌이나 전쟁으로 인한 살인,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등에 대해 허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Blinkhorn et al., 2016). 이때 아동에 대한 체벌이나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폭력의 경우 특히 신체적 폭력을 중심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권위가 데이트 폭력 하위 유형 중 신체적 데이트 폭력과 의 관계에서만 권위주의 성격의 완전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결과는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애의 하위 요인 중 자기충분성은 자신이 유능하다고 믿으며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등 독립성이 특징인 요인이다(Raskin & Terry, 1988). 자기충분성은 다른 하위 요인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심리적 부적응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Raskin & Novacek, 1989), 착취성과 특권 의식 다음으로 공격성과 강한 상관을 보인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Reidy et al., 2008). 본 연구 결과 권위주의 성격이 자기충분성과 정서적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자기충분성이 높은 사람들은 의존적이지 않은 완벽하고 이상적인 자아 인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자신의 완벽한 독립성이나 유능성이 손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노를 느낄 가능성이 크다(Kalyon, Dadandi, & Yazici, 2016). 즉, 자기충분성이 높은 사람들은 연인 관계에서 이상적인 독립성과 유능성이 손상된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분노를 느끼고, 이것이 상대방을 향한 정서적 폭력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그간 신체적, 성적 데이트 폭력에 비해 비교적 연구가 희소하였던 정서적 데이트 폭력에 대해 자기충분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성격의 9가지 하위 요인과 자기애,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자기애의 하위 요인처럼 권위주의 성격의 아홉 가지 하위 요인 또한 특성이 각기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하위 요인별로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권위주의 성격과 자기애,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데이트 폭력 유형별로 영향을 미치는 권위주의의 하위 요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권위주의 성격의 하위 요인 중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권력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지만, 실제로 지각된 권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데이트 폭력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QUAN & 임성문, 2020). 따라서 권위주의 성격의 하위 요인과 데이트 폭력 간 관계를 바탕으로, 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권력에 대한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데이트 관계에서의 가해행위를 예방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위주의 성격의 하위 요인 중 권위주의적 공격성이 강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폭력 사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처럼 폭력을 정당한 갈등 해결 전략으로 인식하게 되면 데이트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증가한다(O'Keefe, 1998). 따라서 권위주

의 성격이 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이 정당한 해결 전략이 아님을 주지시키고, 갈등 상황 발생 시 폭력이 아닌 다른 해결 전략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참가자의 나이가 20-30세 사이인데, 데이트 폭력은 20대뿐만 아니라 거의 전 연령대에 걸쳐 폭넓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연령대 전 범위로 일반화하는 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와 권위주의 성격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위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보고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이때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으로 인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주의를 요한다.

더불어, 데이트 폭력에 관해서는 본 연구에서 탐구한 자기애나 권위주의 외에도 과거 가정 폭력 목격이나 피해 경험(이상훈, 조상현, 2021; Wolf & Foshee, 2003), 폭력허용도와 같은 태도(김동현 외, 2021), 경계선 성향(홍영오 외, 2015), 사회경제적 지위(O'Keefe, 1998) 등과 같은 다양한 개인적, 심리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데이트 폭력에 이와 같은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함께 고려되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유형 외에 최근 들어 통제행동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제행동을 데이트 폭력 하위 유형으로 포함하여 살펴보는 연구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홍영오

외, 2015; Kiire, 2017). 그러나 아직 연인 간 통제행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자기애와 권위주의 성격과 통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애와 권위주의 성격 등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여러 요인들을 중심으로 통제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동현, 박주애, 곽대경 (2021). 연인에 대한 행동통제가 물리적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5(2), 145-160.

남귀숙, 이수진 (2020).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와의 관계: 분노 표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1), 87-107.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4(2), 146-168.

성용은 (2021). 데이트 폭력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7(1), 113-130.

신다혜, 이인혜 (2021). 자기애와 공격적 운전 간의 관계: 분노반추의 매개효과와 공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7(3), 257-282.

신수연, 김근향 (2021).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겪는 대인관계문제의 보호요인으로서 회복탄력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6(3), 151-164.

오주령, 박지선 (2019).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치

- 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0(1), 47-65.
- 원선호, 배성만 (2020).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테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역할과 인지적 공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3), 549-567.
- 윤상연, 한성열 (2008).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항상 권위에 복종적일까?: 권위주의 성격에 따른 권위관계 상황별 복종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3), 41-56.
- 이상훈, 조상현 (2021).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테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와 이성집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0(1), 251-272.
- 이숙정, 권호인 (2021). 남녀의 가해동기와 폭력 정당화가 테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 (APIM)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4), 391-410.
- 이예림, 박지선 (2021). 권위주의 성격과 강간 통념 수용도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의 판단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법, 12(1), 75-97.
- 이종원, 윤상연, 김혜진, 허태균 (2014). 권위주의 성격과 인기도에 따른 학교괴롭힘의 참여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1), 109-135.
- 임효열, 하승수 (2019). 자기애가 성격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 분노반추와 자기자비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1), 95-116.
- 정지은, 박지선 (2022). 타인의존 자기애와 보복운전 경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1), 61-81.
- 조은경, 박지선 (2021). 살인 사건 판단에서 피고인의 민족성과 성별에 따른 차이. 형사정책연구, 32(4), 63-90.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지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지웅, 주혜원, 현명호 (2016). 청소년의 권위주의 성격과 친애동기가 학교폭력태도에 미치는 효과: 암묵적 연합검사를 활용하여. 청소년학연구, 23(9), 233-254.
- Ackerman, R. A., & Donnellan, M. B. (2013). Evaluating self-report measures of narcissistic entitlement.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5(4), 460-474.
- Ackerman, R. A., Witt, E. A.,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 Kashy, D. A. (2011). What does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eally measure?. *Assessment*, 18(1), 67-87.
- Adorno, T. W., Frenkel-Brunswi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s and Bros.
- Al-Tarrah, A., & Lester, D. (2006). Authoritarian attitudes and the expression of aggression in Kuwaiti and US stud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103(3), 767-770.
- Altemeyer, B. (1988). *Enemies of freedom: Understanding right-wing authoritarianism*. San Francisco: Jossey-Bas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 P., &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Vol 1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nderson, A. S., & Lo, C. C. (2011). Intimate partner violence within law enforcement famili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6), 1176-1193.
- Arriaga, X. B., & Foshee, V. A. (2004). Adolescent dating violence: Do adolescents follow in their friends', or their parents', footste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2), 162-184.
- Baumeister, R. F., Bushman, B. J., & Campbell, W. K. (2000). Self-esteem, narcissism, and aggression: Does violence result from low self-esteem or from threatened egot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1), 26-29.
- Begany, J. J., & Milburn, M. A. (2002). Psychological predictors of sexual harassment: Authoritarianism, hostile sexism, and rape myth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3*(2), 119-126.
- Benjamin, A.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attitudes toward violence: Further validation of the attitudes toward violence scal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4*(8), 923-926.
- Blinkhorn, V., Lyons, M., & Almond, L. (2016). Drop the bad attitude! Narcissism predicts acceptance of violent behaviou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8*, 157-161.
- Blumenstein, L., Fridell, L., & Jones, S. (2012). The link between traditional police sub culture and police intimate partner violence.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35*(1), 147-164.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2002).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6), 543-545.
- Chase, K. A., Treboux, D., & O'leary, K. D. (2002). Characteristics of high-risk adolescents' dating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7*(1), 33-49.
- Du, T. V., Miller, J. D., & Lynam, D. R. (2021).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aggression: A meta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90*(4), 574-594
- Erdem, A., & Sahin, R. (2017). Undergraduates' Attitudes toward Dating Violence: Its Relationship with Sexism and Narcissism.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6), 91-105.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Johnson, L. B., Todd, M., & Subramanian, G. (2005). Violence in police families: Work-family spillover. *Journal of family violence, 20*(1), 3-12.
- Kalyon, A. Y. Ş. E., Dadandi, I., & Yazici, H. (2016).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handicapping tendency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traits, anxiety sensitivity, social support, academic achievement. *Dusunen Adam-Journal of Psychiatry and Neurological Sciences, 29*(3), 237-246.
- Kiire, S. (2017). Psychopathy rather than

- Machiavellianism or narcissism facilitates intimate partner violence via fast life strate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4, 401-406.
- Lambe, S., Hamilton-Giachritsis, C., Garner, E., & Walker, J. (2018). The role of narcissism in aggression and violence: A systematic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19(2), 209-230.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1), 39-57.
- Passini, S. (2008). Exploring the multidimensional facets of authoritarianism: Authoritarian aggression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wiss Journal of Psychology*, 67(1), 51-60.
- Quan, S., & 임성문. (2020).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데이트 폭력의 관계: 지각된 권력과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37(2), 179-216.
- Rajan, S., & Krishnan, V. R. (2002). Impact of gender on influence, power and authoritarianism. *Women in Management Review*, 17(5), 197-206
- Raskin, R., & Novacek, J. (1989). An MMPI descript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1), 66-80.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 Reidy, D. E., Zeichner, A., Foster, J. D., & Martinez, M. A. (2008). Effects of narcissistic entitlement and exploitativeness on human physical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4), 865-875.
- Reyes, H. L. M., Foshee, V. A., Niolon, P. H., Reidy, D. E., & Hall, J. E. (2016). Gender role attitudes and male adolescent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Normative beliefs as modera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5(2), 350-360.
- Roiser, M., & Willing, C. (2002). The strange death of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50 years of psychological and political debate.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15(4), 71-96.
- Shorey, R. C., Stuart, G. L., & Cornelius, T. L. (2011). Dating violence and substance use in college studen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6(6), 541-550.
- Spaccatini, F., Pacilli, M. G., Giovannelli, I., Roccato, M., & Penone, G. (2019). Sexualized victims of stranger harassment and victim blaming: The moderating role of right-wing authoritarianism. *Sexuality & Culture*, 23(3), 811-825.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U. E.,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Vrabel, J. K., Zeigler-Hill, V., Lehtman, M., & Hernandez, K. (2020). Narcissism and perceived power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7(1), 124-142.
- Wolf, K. A., & Foshee, V. A. (2003). Family violence, anger expression styles, and adolescent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8(6), 309-316.
Wright, A. G., Edershile, E. A. (2018). Issues resolved and unresolved in pathological narcissism.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21, 74-79.

1차원고접수 : 2022. 11. 02.

심사통과접수 : 2022. 12. 16.

최종원고접수 : 2022. 12. 30.

The mediation effect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between narcissism and dating violence

Naeun Kim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various factors of narcissism affected dating violence, and the effect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between them. In particular, we examined how factors of narcissism affected three types of dating violence (physical, emotional, sexual) respectively, and the role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between them. As a result, the higher the narcissism, the higher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and the more with the three types of dating violence. Among various factors of narcissism, Authority, Exhibitionism, and Entitlement affected physical violence respectively, and the mediation effect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was significant. In addition, Self-sufficiency and Exhibitionism affected emotional violence respectively, and the mediation effect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was also significant. Furthermore, Exhibitionism and Entitlement affected sexual violence respectively, and the mediation effect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was significant. In conclusion, the study showed that different factors of narcissism affected three different types of dating violence, and the mediating role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between narcissism and dating violence.

Key words : narcissism, dating violence, authoritarian personality, physical violence, emotional violence, sexual violence